

트럼프 “이란, 美 파키스탄행 취소 직후 더 나은 제안”

이란 협상단 파키스탄 철수 뒤 美대표단 일정 취소...협상 무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의 미-이란 2차 종전 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란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르 가서 이란 측과 만나려던 우리 대표단의 방문 일정을 강금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날 파키스탄에 도착했던 이란 협상단이 이날 파키스탄을 떠난 데 이어 미국 협상단의 방문도 취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2차 종전 협상

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할 일도 많다”면서 “게다가 그들의 ‘지도부’ 내부는 엄청난 내분과 혼란에 휩싸여 있다. 그들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카드는 우리가 갖고 있고, 그들에겐 아무 카드도 없다”며 “그들이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전화만 하면 된다”고 적었다.

이는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한 데다 대이란 해상 봉쇄로 경제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대화 가능성은 열어도 협상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위해 에어포스원에 탑

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내분 상황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하지만 나는 필요한 상대면 누구하고든 협상할 것”이라며 대화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단의 파키스탄행이 취소된 배경과 관련해 “어제와 오늘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아니다(nothing)”며 “단지 그들이 우리에게 더 나아와야 할 문서를 가져왔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흥미롭게도 내가 (미국 협상단의 파키스탄행) 취소하자마자 10분도 안 돼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새로운 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당초 미국의 종전 제안과 관련해 불만족스러운 답변을 줬다가, 미국이 파키스탄행을 취소한 직후 이보다는 개선된 제안을 내보냈다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모든 합의는 복잡하지 않다. 매우 간단하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백악관 기자단 만찬 도중 총격범이 총을 발사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옥스퍼드대서 울려 퍼진 K팝...“상상도 할 수 없는 일”

3천700억원 기부받은 인문학센터

일반 개관 행사 K팝 콘서트장 방불

25일(현지시간) 오후 영어권 최고(最古) 명문대 영국 옥스퍼드대의 슈워츠먼 인문학센터. 어린 자녀와 함께한 가족들부터 친구끼리 웃고 떠드는 청년들, 나이 지긋한 주민들까지 삼삼오오 모여든 수백명이 개방형 공간 한가운데의 원형 무대를 둘러쌌다.

로제의 ‘아파트’(APT)를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골든’(Golden), ‘프리’(Free), ‘유어 아이돌’(Your Idol), ‘소다팝’(Soda Pop)이 차례로 울려 퍼지자 센터는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환호로 가득 찼다.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케데헌’ 주인공 루미의 무대 의상과 보라색 땀은 머리 스타일까지 완벽한 채 객석에 앉은 밀라(9)양은 “K팝을 정말 좋아한다”며 “아침에 도착해서 한참 기다렸다. 공연을 보게 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날 K팝 공연은 옥스퍼드대 슈워츠먼 인문학센터의 일반 개관 행사를 꾸민 중심 무대였다.

1억8천500만파운드(약 3천700억원)를 기부한 스티븐 A 슈워츠먼 블랙스톤 공동창업자의 이름을 딴 이 센터는 옥스퍼드대가 과학기술의 시대 인문학의 역할과 미래를 탐색하기 위해 연 곳이다. 인문대 각 학부와 도서관을 한데 모은 학문의 전당인 동시에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공연예술 공간이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퍼드대 슈워츠먼 인문학센터 일반 개관식에서 K-팝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근엄한 상아탑을 넘어서서 일반 시민과 접점을 대폭 늘리겠다는 옥스퍼드대의 취지에 글로벌 대중문화의 ‘대세’인 K팝이 딱 들어맞은 셈이다.

지는 케어(조지) 한국학 교수는 “오늘 참관한 대학 안팎의 고위 인사들도 옥스퍼드대 인문관에서 K팝 무대를 보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 행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다.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이런 대중적인 무대는 처음 본다 등 놀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제임스 루이스 한국학 교수도 “예전에는 한국학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행사를 보니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옥스퍼드 한국학센터 출범도 공식 발표됐다. 옥스퍼드대의 한국학 연구·교수를 총괄하는 ‘옥스퍼드 한국학센터’는 오는 10월 새 학기에 문을 열 예정이다. 특히 한류가 세계 주요 문화로 떠오른 만큼 그 지속가능성을 위한 한국 문화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 창작의 산실로서 지속적인 한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비전도 세웠다. /연합뉴스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성...트럼프 피신

트럼프·밴스 무사...총격범 체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25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성이 들려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피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께 워싱턴DC의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 후 국가 연주 의식이 끝나고 모두 식사하고 있던 오후 8시30분께 사건이 발생했다.

행사 도중 총격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몇 차례 들려왔고, 곧바로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총격 발생”이라고 외쳤다고 백악관 폴 기자단이 전했다.

무대 위에 마련된 헤드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배우자 멜라니아 여사, JD 밴스 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긴 뒤 행사장 뒤로 피신했다.

총격이 정확히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은 모두 부상 없이 안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경호국은 총격 용의자를 체포해 구금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9시20분께 트루스 소셜을 통해 “비밀경호국과 법 집행기관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은 신속하고 용감하게 대응했다”며 “총격범은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DC의 파란만장한 밤”이라며 “나는 행사를 계속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법 집행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젤렌스키 “러 준비됐다면 아제르바이잔서 종전협상”

우크라이나가 아제르바이잔과 안보·에너지 협정을 체결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아제르바이잔과 협정 체결 소식을 전하며 “아제르바이잔과 에너지·경제, 인도적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이날 일할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아제르바이잔에서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

을 속개하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 다음 협상을 아제르바이잔에서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유럽 국가들과 공동 무기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보·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